이별 식탁 트리트먼트

S#1 집 , 방 안 – 밤

방 안에서 여자가 전화를 하면서 울고있다. 헤어진 남자친구를 붙잡고 있는 듯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다고, 한 번만 만나자고, 자신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계속 울고 있는 여자. 남자가 전화를 끊은 듯 여자는 계속 전화에 대고 남자를 부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린다.

S#2 집, 화장실 - 밤

한참을 울은 듯한 얼굴로 여자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다. 세수를 한 뒤 멍하니 자신의 얼굴을 바라 보다가 다시 손을 씻고 세수를 하는 여자.

S#3 집 - 낮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여자의 얼굴 위로 햇빛이 들어온다. 여자는 잠시 얼굴을 찌푸리다가 시간을 확인한다. 시계가 12시를 가리키고 있다. 잠시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던 여자는 이내 일어나서 씻고 화장을 하고 편한 외출복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S#4 집 밖 - 낮

옷을 갈아입고 여자는 집을 나선다. 매우 화창한 날씨 속에서 여자가 잠시 눈을 찌푸리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짓는다. 이내 여자는 길을 따라 집 근처의 마트를 향해서 걸어간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있다.

S#5 마트 – 낮

여자가 여러가지를 유심히 살피면서 음식 재료를 사고 있다. 재료 앞에서 고민하기도 하고 가격을 비교하기도 하면서 음식을 사는 여자. 마트에서 계산을 하면서 마트의 점원과 대화를 한다. 점원이 재료를 많이 산다고 하면서 특별한 날이냐고 묻자 여자는 그냥, 남자 친구 때문에요 라고 대답하면서 옅은 미소를 짓는다. 점원이 알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여자에게 고기는 필요 없냐고 묻는다. 여자는 계속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고기는 이미 집에 많이 있다고 하고 웃는다.

S#6 집 – 오후

재료를 사들고 집으로 온 여자는 요리를 시작한다. 찌개를 끓이고 고기를 구우면서 정성스럽게 온갖 요리를 다 한 뒤 식탁에 음식을 차린다. 밥과 국, 반찬이 예쁘게 놓여 있지만 그릇과 수저, 젓가락은 한 쌍 씩 밖에 없다. 예쁘게 놓인 음식을 보며 여자는 요리를 마치고 자리에 앉는다. 여자는 식탁 위의 자신과 남자친구가 찍은 사진 속 액자를 바라보며 잘 먹을게 라고 말한다. 이윽고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여자.

S#7 집 – 오후

음식을 다 먹고 앉아있는 여자에게 전화가 온다. 전화를 건 사람은 여자의 친구이다. 여자는 괜찮다고 방금 밥 먹었다고 자신을 더 이상 걱정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친구를 달래주고 전화를 끊는다. 전화를 끊고 여자는 폰을 내려놓으며 언제 다 치우지 라고 중얼거린다. 하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머금고 먹은 그릇들을 전부 싱크대에 옮기는 여자

그릇을 치우고 잠시 한숨을 내쉬고 화장실 문을 연 여자.

화장실은 온통 피로 범벅이 되어있고 남자의 손이 피투성이가 된 채 욕조 밖으로 나와았다. 여자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화장실에 물을 뿌리며 청소를 시작한다.